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

말라리아(모기매개) 예방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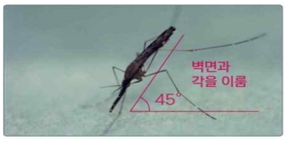
제2021 - 67호 ■ **담당부서 : 학생자치부** ■ **담당자 : 보건교사** ■ **연락처 : 031-259-0474**

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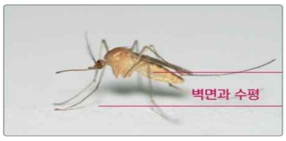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는 말라리아 발생국가로써 **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** 시기(5~10월)에 주로 인천, 경기·강원 북부지역에서 **환자가 많이 발생**하고 있습니다.(※ 다발생지역: 인천(강화 등), 경기(파주, 김포, 고양, 연천 등) 및 강원(철원, 고성 등) 북부)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말라리아란?

말라리아 원충(병원체)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파하는 모기는 얼룩 날개 모기 속에 속하는 암컷 모기로 일반 모기와는 달리 앉아 있을 때 꽁지를 들며, 비행시 '윙'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 요함.



[말라리아 매개 모기]



[일반모기]

■ 주요증상

○ 말라리아 초기 증상(발열, 오한, 두통 등)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, 감기몸살과 유사하고, 최근에는 초기 증상이 경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

※ 가벼운 감기몸살이나 냉방병으로 여겨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고 나은 줄 알았는데, 며칠 후 다시 증상이 심해져 뒤늦게 말라리아로 진단되는 경우 증가

○ 말라리아는 **잠복기가 다양(7일~12개월)**하여 모기에 물린 후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음 해에 발병하기도 함.

■ 진료 및 검사

○ 말라리아 다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기에 물린 후 발열,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기몸살 시 말라리아도 반드시 의심하여 신속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- 진단이 늦어지면 모기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물어 전파 확산 가능
- 신속진단검사로 15분 만에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시엔 즉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

■ 예방수칙

말라리아 예방수칙 여섯가지

1 야간활동 자제

■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

2 운동후엔 샤워

■ 운동 시 땀으로 모기가 유인되므로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세요

3 밝은색의 긴옷 착용

■ 야간·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옷을 입고

4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

■ 상처나 얼굴주변을 피해 기피제를 사용하세요

5 모기 서식처 제거

■ 주 1회 집 주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인공용기, 웅덩이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

6 방충망 정비

■ 모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취침 전 방충망을 점검하고 모기장을 사용해주세요

○ (야간활동 주의)

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야간(밤 10시~새벽 4시)에 활발하게 활동하며, 어두운 색의 옷을 입거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주로 물고 있습니다. 다발생지역에서는 야간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○ (주변 환경관리)

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방충망에 틈이 없는지 점검하고,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세요.

- 살충제(모기향, 에어로졸 등)는 모기 제거에 도움이 되며, 밀폐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(http://www.kdca.go.kr)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2021. 6. 10.

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장